

큰스님 수행한담

“참고 기다릴줄 알아야

다시 푸는 경서

42장경

천운스님 <광주 향림사 조실>



(14) 沙門問佛 何者爲善 何者最大
사문문불 하자위선 하자최대
佛言 行道守眞者善 志與道合者大
불언 행도수진자선 지여도합자대

人以愛欲交纏 心中彌興 故不見道
인애욕교착 심중탁흥 고불견도
汝等沙門當捨愛欲 愛欲垢盡 道可現矣
여등사문당사애욕 애욕구진 도가견의

한 사문이 여쭈었다.
“무엇을 선이라 하며 무엇이 최상승 법 인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팔정도를 따르고 항상 참됨을 지키는게 선이니 뜻이 그러하면 도와 계합하여 놓고 크리라.”

사람이 애욕을 품으면 도를 알 수 없다.
비유하자면 맑은 물을 휘저어놓으면 사람들이 들여다 보아도 제 얼굴을 비춰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이 애욕에 뒤엉키게 되면 마음이 매우 혼탁해져 도를 알 수 없다.
너희들 사문은 마땅히 애욕을 버려야 한다.
마음에 애욕의 때가 없어야 도를 볼 수 있느니라.

(15) 沙門問佛 何者多力 何者最明
사문문불 하자다력 하자최명
佛言 忍辱多力 不懷惡故 兼加安健
불언 인욕다력 불회악고 겸가안건
忍辱無惡 必爲人尊
인자무악 필위인존
心垢滅盡 淨無瑕穢 是爲最明
심구멸진 정무하에 시위최명
未有天地 運於今日 十方所有 無有不現
미유천지 태어금일 사방소유 무유불견
無有不知 無有不知 得一剎那 可謂明矣

(17) (佛言) 夫見道者 譬如持炬入冥室中
(불언) 부견도자 비여지거입명실중
其冥即滅 而名獨存
기명즉멸 이명독존
學道見滿 無明即滅 而明常存矣
학도견만 무명즉멸 이명상존의

‘무릇 도를 안다는 것은 비유하여

광주 치경동에 자리를 잡고 향림사라 이름지어 부처님 전에 향 올리며 살아온 지 어언 30여년이 되지만 출가수행자의 생활이란게 별다른게 있겠어요. 시끄럽거나 조용하거나 간에 남의 일 간섭치 않고, 그저 나의 몸과 마음에 밴 악습이나 고쳐서 부처되는 길에 도움을 얻고자. 남의 단점도 스승 삼고 남의 장점도 스승 삼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지요.

입니다.
요즘과 같이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에 더욱 생각나는 스승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 나 혼자만의 영화를 위해 기를 쓰고 살면서 남의 고통은 나몰라라 해요. 부모형제도 모르고, 일가친척도 모르고 극도의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먹고 졸리면 자면서 공상심으로 지내고자 합니다. 늦게나마 복지도도 관심을 쏟다보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뜬나면 참선하고 어떻게 하면 한사람에게라도 불법을 더 알릴까 고민하는 것이 생활의 전부입니다.

첨단과학을 선호해 인선(仁善)을 무시하고, 물질만이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배틀어진 생각이 만연되어 있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은 물론이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마저 뒷방간 상태에서 인명을 경시하는 풍토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나 아무리 물질은 자기 앞에 쌓아놓아도 정신은 항상 혼란스럽

- 1932년 전북 고창 생
· 47년 월정사에서 지일스님 계사로 사미계 수지
· 58년 선운사에서 지일스님 계사로 구족계 수지
· 60년 선운사 도솔암 대교과 수료
· 송광사, 용암사, 도갑사 등에서 수선안거
·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 주지 역임
· 現 광주 향림사에 주석
· 저서 <알고가는 길> <끝없는 행원> 등 다수

“남의 단점을 스승삼고 남의 장점도 스승삼아 몸과 마음에 밴 악습고치면 선한마음 선한행동 드러나요”

있을까요. “욕심이 지나치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못배운 사람들은 못배워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요행만 바라고 있으니 세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탐욕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고 욕심은 또다른 욕심을 낳기 마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물질에 뜻을 두지 않지요. 부처님께서 “자기 본위가 아니라, 상대를 본위로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희생과 봉사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은 부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불교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에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시봉든지 1년쯤 후 한영스님이 입적하셨어요. 한동안 고베 풀린 망아지 산세를 면치못했던 나는 월정사에서 지일스님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지요. 한

팔정도 따르며 참됨 지키는게 禪 애욕에 뒤엉키면 도를 알 수 없다

무유부지 무유불문 득일제지 가위명의
한 사문이 여쭈었다.
“무엇이 가장 힘써며 무엇이 가장 지혜롭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인욕이 가장 세다. 악한 마음 품지 않으므로 겸하여 편안하고 건강하며 그에겐 악한 마음이 없으니 사람들이 반드시 존경한다.
마음의 때가 깨끗이 사라져 더러움이 없으면 이것이 가장 지혜롭다.
천지가 벌어지기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방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게 없고 알지 못하는게 없고 듣지 못하는게 없어 일체지를 얻었으니 이를 일러 가장 밝은 지혜라 한다.”

햇물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져 밝아지는 것과 같다.
도를 배워 진리를 알면 무명은 곧 사라져 함시 밝은 지혜만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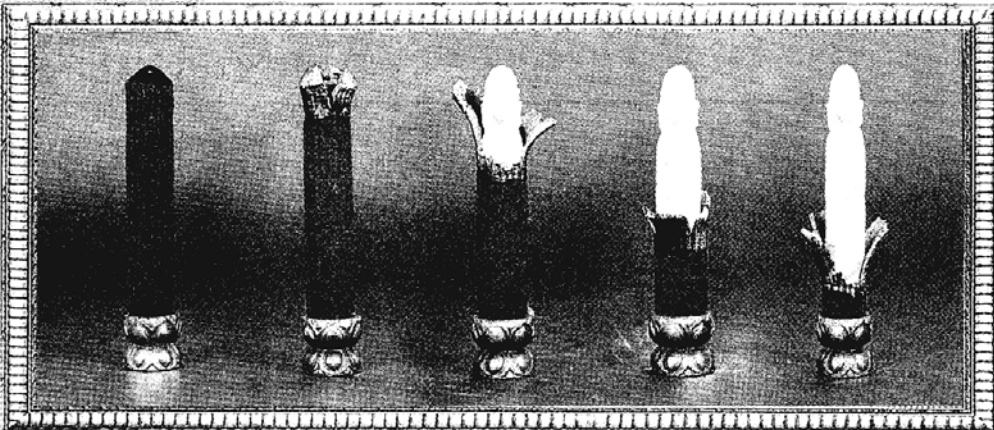
(16) (佛言) 人懷愛欲 不見道者
(불언) 인회애욕 불견도자
譬如澄水 致手攪雜 眾人共臨 無有觀
비여징수 치수교지 중인공림 무유도
其影者
기영자

(18) (佛言) 吾法 念無念念 行無行行 言無
(불언) 오법 염무념념 행무행행 언무
言言 修無修修
언언 수무수수
會者近爾 迷者遠乎
회자근이 미자원호
言語道斷 非物所拘 差之毫釐 失之須臾
언어도단 비물소구 차지호리 실지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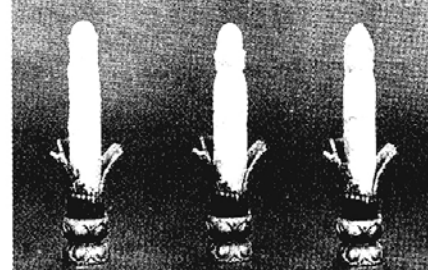
‘내가 가르치는 이 법은 얽매이는 생각이 생각하며 얽매이는 의도없이 행하고 얽매이는 뜻없이 말하고 얻는다는 생각이 담는 것이다.
이를 아는 자는 가까이 이를 수 있고 미혹한 자는 아득하리라.
말로 이를 수 없고 경계마다 걸림이 없으니 티끌만들이라도 어긋나면 할나 간에 길을 잃고 만다.’

龍眼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현상공덕향은 외형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한 후에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처럼 벌어지며, 내부적으로는 타고 남은 재가 흰색반상의 부처님 형상으로 남게 됩니다.
이 뜻은 외형과 결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산공양」, 즉 몸을 태워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법리와 상통합니다.
현상공덕향은 초아루, 보름, 석가탄신일, 백중, 법회 및 각종 기념행사와 기도에도 사용되는 고급향입니다.
향이 타는 도중에 부처님의 법상이 출현하고 부처님소중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을 구하게 됩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製造原: 金城通商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74 84-10

Tel: (051) 466-3731~2 Fax: (051) 466-3733

권 수익금 일부는 불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권

전국판매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서울·경기/대전·충청남북/ 광주·전라남북/
부산·경남/대구·경북/강릉·강원/제주